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말씀: 롬6:1-11

2014년 4월 16일(수) 세월호 사건, 300여 명 사망 실종(120명 실종, 국무 총리 사임),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 23일 교회 금식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구원파의 유병언 씨와 그 일가이다. 과거의 구원파 관련 사건: 오대양(32명), 한강 유람선(15명), 회사 경영하면서 막대한 개인 재산, 비밀의 금수원 모임 등, 위법, 불법 행위는 마땅히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구원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1992년의 다미 선교회: 재림과 휴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원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스도, 복음, 침례, 재림, 휴거, 구원, 마귀의 작전이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

구원파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핵심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지옥 불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려고(마10:28). 이것이 구원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율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였다.

특히 율법과 행위 중심의 구약식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 십일조 및 헌금,

이런 것들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줄로 착각한 목사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 7-80년대 이후 선교 단체, 은혜의 복음 확산

나는 감리교회에서 30년 이상 자랐고 구원파 목사들과 일면식도 없다. 인터넷 자료

이런 가운데 1961년에 장로교회의 권신찬 목사라는 분이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분은의 자서전: 로마서 1장 17절의 ‘의’ 문제, 로마서 3장 20-24절과 10장 1-4절의 말씀, 1:16-17, 8:1 말씀을 통해 사람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통해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기것은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등 과거의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난 공통 현상이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210장), 목사 생활 10년, 만 39세

이후에 이분은 복음만을 설교하기로 하고 극동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분이 이단이었던 팀 선교회 중심의 방송국에서 받아주겠는가? 팀 선교회는 생명의 말씀사 설립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분의 집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결국 구원파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초대 기독교회에도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므로 무슨 죄를 저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죄 짓는 면허를 주는 이런 사상이 도적적 해이와 함께 구원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유병언 씨의 복음 침례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구원파는 유병언, 박옥수, 이복철(이요한) 같은 분들의 분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런 분들의 과거 행적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처음에 권신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니 함부로 방종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올바른 복음을 진술한 것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신찬 목사도 그 추종자들과 함께 배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구원파 전도의 공식화, (2) 성경을 구원오로만 푸는 것, (3) 우리만 교회다.

나는 오늘 권신찬 목사나 구원파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구원은 틀린 것이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구원은 무엇인가?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인정해야 한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몸이 죽지만 아담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 지옥에 간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창2:17).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사교, 재산 증식, 아이들 축복이 목적이 아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롬1:16-17).

이런 복음 선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살전1:9-10). 예수님이 전파되면 첫째로 구원이 생긴다.

재림의 소망이 생긴다. 둘째로 성도의 성화가 이루어진다(살전1:6-8).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3-5장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6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1-2절: 우리가 짊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하느냐? 아니다. No! 구원은 죄 짓게 하는 면허가 아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 성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악한 일을 해야만 더 큰 은혜, No! 기독교 가정에서 반듯하게 교육을 받고 죄를 모른 채 자라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2-5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 사람을 못 박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같이 일어난 것이다. 갈2:20; 6:14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해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a. 언제 예수님이 추종자들로부터 돈을 굶어모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왕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떠나셨다(요6:15). 목사들이 명심해야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b.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도 참아냈다(벤전2:11-20):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한 왕과 권위 가진 자를 존중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c. 그러므로 성도들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치면 회개해야 한다(고전 14:23-25).

d. 즉 불신자의 눈에도 교회가 교회답게 보여야 한다: 의복, 음악, 아이들, 말, 장식, 음식 등 모든 것에서 고상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폭행 폭언 No!),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비싼 것이 아니라 고상해야 한다). 왕상10:4-8 그리고 9절을 보라.

(1) 엇그제 조선일보: 구원파 기사, 광고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e.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빌3:17-21), 탐욕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많다.

교회에 은행 혹은 신협이 들어서고 교회가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교주가 있어서 수백 개 교회를 관장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죽은 뒤에도 그 사람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6-7절: 구원받으면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구원은 죄 짓는 면허가 아니라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골레이다.

8-10절: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

11절: 성화의 방법, 죽은 자로 처리해야 한다. 죽은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죽은 자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결론

우리는 세칭 구원파가 아니다. 다만 성경에 따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음을 믿는다.

요5:24, 10:28-29, 히7:25; 10:10; 요일5:12-13, 세상과 타협하려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버릴 수 없다. 기독교의 근간이다.

그러나 구원과 지도자들이나 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독교는 그런 행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원수이다.

성경의 기독교는 구원 이후에 삶이 구원 이전과 달라야 함을 보여 준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마7:15-20).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